다산포럼

김민환

전자미디어시대의 선거 비법

지금은 전자미디어시대다. 사람들은 기존의 언론 매체를 제쳐놓고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 나른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산자가 되어 메시지를 만들어 유포한다.

사람들은 전에는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앞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소비적 수용자였으나 이제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고 조합하는 생산적 사용자로 탈바꿈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전자미디어는 정치영역에서도 기존 매체를 뛰어넘어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자미디어는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정치정보의 유통에 기여하다가, 선거판과 같은 중요한 국면에서는 풍향을 바꾸는 바람개비가 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제기되면 집단항의나 시위를 매개(媒介)하는 선전선동가, 조직자가 된다.

최근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가세하여 전자매체가 매개하는 전자민주주의의 위세는 도도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이런 전자민주주의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선스타인(Sunstein)이라는 학자가 지적한 바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매체를 선별하고 정보나 지식을 가린다. 자연스런 결과겠지만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끼리 교감한다. 그래서 전자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끼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의 울타리에 갇히기 십상이다.

최근에 조선대의 박선희 교수는 우리 정치판의 전자 마당(electronic agora)에서도 이런 끼리끼리 풍속이 다양한 차원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첫째, 정치인 상호간의 소통도 끼리끼리다.

많은 정치인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네트워크 구조는 동일 정당 소속 정치인끼리 유유상종의 연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인의 블로그 네트워크 역시 소속 정당이나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둘째, 정치인과 시민 사이의 소통 역시 끼리끼리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시민의 정치인 블로그 공간 이용에도 오프라인상의 권력구조가 그대로 투영된다. 정치인의 트위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정치인의 퍼스널 커뮤니티는 정치인 개인의 트위터에 대한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정서적 커뮤니티가 되기도 하고 네트워크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정치인과 동질적인 호모필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현상은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시민끼리의 정치소통에서도 나타난다. 고려대의 김성태 교수 연구 결과가 이를 거증한다. 그가 시민간 소통이 활발한 정치 웹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치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만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이 단절되는 편향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올해는 선거의 해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고 연말이면 대통령선거도 해야 한다. 올해 정치인 사이에,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그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만개해 좋은 후보를 대표로 뽑아야한다. 중요한 의제가 산재한 마당에 대표를 잘못 뽑았다가는 나라의 밑바탕이 흔들릴 수도 있다.

선거판은 모름지기 커뮤니케이션 판이다. 이 판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자연스레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된다. 그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낙오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전자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견해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대 다수가 공감하는 대안을 내는 그런 이종상통(異種相通)의 커뮤니케이션이라야 한다.

전자미디어는 속으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 나의 한계를 깨라. 끼리끼리의 울타리를 넘어라. 거기에 승리가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수산시설 '강풍 피해' 보상길 막막하다니

이달 초 전남지역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모두 56억 원대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8일 집계한 강풍 피해액은 농업시설 파손 45억 3000만 원, 수산시설 11억 원 등 56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나주와 담양, 해남 등 15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661동(43.7ha)이 찢기거나 쓰러졌으며 여수와 해남, 목포 등지에서는 가두리 양식장과 김 양식시설, 어선 5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농업분야의 경우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수산분야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농업은 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지역 대부분이 기준치를 넘어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수산은 이 기준에 미달돼 어민들이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대책법에는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복구비로 피해액의 35%를 보조해주고, 피해액 중 50%는 1.5% 이율로 대출해 주도록 돼 있다. 또 농작물 피해율이 100%면 타작물 재배 비용과 농약비 등을 지원해 준다.

하지만 강풍으로 인한 수산피해는 지역에 따라 14억~32억 원이 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피해를 놓고 본다면 어민들 스스로 복구를 해야할 판이다.

따라서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잦은 기상이변을 감안해 재해대책법상 복구기준과 복구비를 상향시켜야 하며, 자체의 복구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 특히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어가는 피해액의 8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가 올해 어민들의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4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다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예기치 못한 강풍과 해마다 태풍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자연재해가 불가항력적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이 필수가 아닌가.

청소년 자살 더 이상 방조는 안 된다

신변을 비관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 따돌림은 물론이고 성적 중심의 사회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보면 2005년~2010년 초·중·고생 자살자는 870명으로 한해 평균 145명에 이른다. 대학생 자살자는 이 보다 많아 연간 230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 광주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지난해 광주지역 중·고생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22.6%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6%나 됐다. 특히 부모없는 조손가정에서 자란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자살을 고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0일 전남의 한 고교생이 먼저 자살한 친구를 그리워하다 자신도 저수지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으며, 같은 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인문계 고를 중퇴,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학생이 목매 숨지기도 했다. 이들은 죽기 전 노트 등에 먼저 간 친구에 대한 동경이나 신변 비관 등의 내용을 남겼다. 어린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사회에 자살률이 높은 것은 출세와 성공지향의 정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청소년 자살은 대개 충동적인 경우가 많지만 어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거나, 정부 차원의 대책도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주마다 전문가를 배치해 자살위험 가능 청소년을 집중 관리하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종교, 학계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다.

NGO 칼럼

재능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장우철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재능을 나누고 함께 하려는 트랜드가 부상 중이다. 본인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기술이나 재능을 기부함으로서 자신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재능 등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기부를 받는 분들에겐 커다란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

기부 하면 대부분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는 것에는 다소 인식이 덜 되어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슨 재능이 있냐고 물어보면 '난 무슨 재능이 있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의 범위가 폭넓고 다양하듯 재능 또한 여러 가지이다. 특히 재능기부센터에서 추구하는 재능이란 다른 이를 위해 무언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혼자 밥 먹기 적적한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손잡고 같이 걸어주는 것, 이러한 함께 걸음도 재능이기 때문이다.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나눔에 함께 동참하고 무언가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한다.

현재 나눔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있고 의지는 있으나 동참이 어려운 인적 자원의 확보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 내에서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나눔을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 자체가 이미 작은 나눔의 연속체이기에 우린 늘 누군가와 나누고 받는다. 그렇기에 재능 나눔은 쌍방향적 구조이다. 재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자도 수혜자도 나아가 세상도 변화시키는 공동체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도움 받은 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역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재능 나눔을 좀 더 재미있고 신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위한 콘서트 진행, 소중한 사연들을 접수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 소원 들어주기 사업, 바깥출입이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합심하여 나눔을 실천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나눔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새로운 시민운동의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요즘 SNS를 통한 소통이 대세이다. 이러한 SNS를 통한 재능 나눔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센터 위주의 사업방식이 아닌 회원 중심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수 박혜경씨나 영화배우 김여진씨 처럼 응원할 대상이 정해지면 장소와 시간을 정해 참여 희망자들이 만나고 그 곳을 나눔의 장터로 만드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사연이 올리면 행사의 주최자가 되고 참여자는 주최 측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자발적인 나눔이 되겠는가?

이러한 재능 나눔을 통해서 삶에 지쳐 힘들어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질것이다. 그 길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다.

〈광주재능기부센터 사무처장〉

기고

탄소, 아껴 쓰고 저축합시다

이종환

북극곰 한 마리가 작은 얼음덩이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영상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만년빙이 사라져간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지구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얘기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온실효과를 낮추자는 것이다.

지구의 대기권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대표적 광합성생물인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유기물을 합성한다. 이 식물을 먹이로 하는 다른 생물들은 세포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또한 사체나 배변을 통해 탄소를 토양이나 물로 내보낸다.

땅 속 퇴적물에는 과거의 생물체가 지녔던 탄소가 포함되는데, 석회석은 고대 해양생물체의 외골격 또는 패각으로부터,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는 오래전에 죽은 생물체의 잔재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이 연료들이 사용될 때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적인 지구생태계의 순환을 통해 지구는 이산화탄소의 평형 (이산화탄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량생산과 개발중심의 사회발전 구조 속에서 지구의 허파역할을 하는 숲을 개간하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평형을 유지해 왔던 지구 에너지 흐름에 교란을 가져왔고, 결국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난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단위로 탄소배출량을 설정하고 적게 쓴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해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감축국가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광주도 이미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증대를 비롯해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중립숲 조성, 도시청정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탄소은행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탄소은행은 가정에서부터 전기·도시가스·상수도사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시민참여형 탄소저감사업으로 작게는 참여가정의 공과금 부담의 경감으로 크게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광주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은행은 사용량을 절감한 만큼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여 준다.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놀라운 것은 사업시행 3년여가 지난 현재 전체 세대의 43%인 24만 가구가 가입할 만큼 시민의 호응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입세대의 74%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점이다.

광주시민의 작은 움직임이 지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하나하나의 노력들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욕을 갖게 한다.

탄소는 아껴써야 할 우리의 자원이다. 식물의 광합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편리하게 이용되고, 흑연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여러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공존하는 탄소. 탄소를 아껴 쓰고 저축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자연을 건강한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

無等鼓

조현오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청장은 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나자 치안부서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도 곁들였다.

지난 2010년 8월, 우리나라 10만 경찰 수장으로 취임했던 조 청장은 몇 차례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10년 3월 말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언급으로 파장이 일자 그는 "기억에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외무고시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갈등국면에서는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는 강단을 보여주기도 했다. 올해 검경 사이에서는 검찰 진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거부, 밀양경찰서 간부의 사건 담당 검사 고소 사건 등으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조 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경찰의 내부결속을 다졌다는 평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조 청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일었다.

조 청장의 사퇴는 '수원 사건'이 결정타였다. 지난 1일 밤 경기지방경찰청 112센터에 한 여성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긴박한 신고를 해왔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 탓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경찰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신고자와의 통화시간을 줄여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비등하는 여론에 조 청장은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발언에 따른 정치권의 압박, 검찰과 갈등 부담도 버텨냈던 조 청장의 옷을 벗긴 것은 결국 본분을 다하지 못한 '부하'들인 셈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국내산 젖소도 초유 생산해 상품화 했으면

요즘 웬만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초유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사람의 모유 중 초유가 중요한 것처럼, 젖소가 송아지를 낳은 뒤 3~5일간 분비되는 젖도 초유라고 한다.

이것을 송아지가 먹기도 하지만 이 젖을 짜내 의학적으로 가공할 경우 그것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것이다.

이 초유는 각종 면역물질과 성장촉진물질은 물론 여러 가지 약리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항생제 대용이나 치료용으로 이용될 정도였다. 초유의 과학적 기능은 면역기능, 성장촉진기능, 항균기능, 두뇌 발달 기능, 근육질 강화 기능 등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래서 초유 추출물을 수입해 신생아와 영유아용 분유나 이유식에 첨가한 제품들이 요즘 돈 좀 있는 엄마들에게는 인기라고 한다. 그런데 엄마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이 초유 성분은 100% 모두 다 수입품이다.

물론 수입품이 모두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기왕지사 내 아기에게 먹이는 초유도 신토불이 국내산을 먹이고 싶지만 국내에서는 이 초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국내산 초유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젖소 초유는 상업용으로 생산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직 초유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생기준이나 제품규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초유에 대한 관심도 높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는 실정이니 하루빨리 정부의 식품안전 당국에서 초유에 대한 위생기준과 품질규격을 설정해서 국내산 젖소에게서도 초유를 짜내 상업화하고 그걸 유아용 상품으로 만든다면 외화 절약은 물론 주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낙농 선진국인 뉴질랜드는 해마다 8월에 일시적으로 송아지를 분만시켜, 초유 생산을 규모화, 상업화하고 있다고 한다.

잘만 하면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니 우리 전라남북도 농촌 목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유 상품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